

프랑스어 (se) casser la tête의 의미에 대한 인지언어학적 분석*

박 정 준

(인천대학교 부교수)

◆ 국문초록

은유는 흔히 언어학의 연구 대상으로 여겨지지 않았으나, 레이코프와 존슨이 '개념적 은유'를 통하여 은유가 우리의 일상 언어에 퍼져 있음은 물론이고 사고의 세계에 만연되어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은유 표현들을 언어학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인지언어학도 마찬가지로 비유적 언어를 문제로 여기지 말고 해결책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가진다.

개념적 혼성은 언어의 의미 구성 방식을 다루는 인지언어학의 한 가지 방법론으로, 입력 공간 구축과 공간 횡단 사상과 투사로 이루어진 다소 복잡한 인지 과정이다. 먼저, 입력 공간들 사이에서 부분적 공간 횡단 사상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입력 공간에 공통된 총칭 공간에 의해 한정된다. 다음으로, 입력 공간의 요소들이 혼성 공간에 선택적으로 투사되어 새로운 출현 구조가 형성된다. 이러한 출현 구조가 바로 의미 구성의 실마리가 된다.

혼성 이론을 통한 은유의 분석은 개념적 은유 이론이 추상적인 개념적 은유 자체에 초점을 두는 것과 달리 개별 표현의 은유적 의미가 구성되는 방식에 초점을 둔다. 또한, 개념적 은유 이론은 장기 기억 속에 저장된 인지 모형으로 작용하는 반면에 혼성 이론은 실시간 처리가 이루어지는 동안에 구성되는 정신 공간을 통해 작용한다. 이와 같은 혼성 이론을 바탕으로 (se) casser la tête의 은유적 의미를 개념적 통합 연결망의 구성을 통해 분석한다. 장기 기억에 존재하는 개념적 은유 {머리는 그릇이다}가 실제 예문에서 제공된 각기 다른 문맥에 따라 실시간으로 구성된 개념적 통합 연결망에 의해 각기 구별되는 은유적 의미로 발현되는 것을 이 분석을 통하여 확인한다.

주제어 : 은유, 환유, tête, 혼성 이론, 인지언어학

* 이 논문은 인천대학교 2016년도 자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I. 머리말

우리는 흔히 은유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시인의 시적 감수성이다.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당신은 훔밭로 나를 짓밟습니다.
나는 당신을 안고 물을 건너갑니다.
나는 당신을 안으면 깊으나 열으나 급한 여울이나 건너갑니다.

만일 당신이 아니 오시면 나는 바람을 쐬고 눈비를 맞으며 밤에서 낮까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물만 건너면 나를 돌아보지도 않고 가십니다 그려.
그러나 당신이 언제든지 오실 줄만은 알아요.
나는 당신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날마다 낡아 갑니다.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한용운 시인의 「나룻배와 행인」이다. 이와 같은 시를 통하여 감동을 얻게 되는 요인 가운데 하나는 시인의 매우 적절한 은유 사용이라고 할 수 있다. 위 시에서 시인은 자신을 나룻배에 비유하고 있다. 나룻배는 기다림의 속성으로 태어난 존재이다. 행인으로 비유된 당신은 강을 건너고 나면 뒤를 돌아보지 않고 갈 길을 이어서 갈 것이지만, 나는 기다릴 것이고 나의 기다림은 기쁨에서 우려난 것이다. 시인은 ‘나는 나룻배이다’와 ‘당신은 행인이다’라는 은유를 사용하여 참된 사랑의 본질은 자비와 인내를 바탕으로 한 희생과 믿음임을 노래하며, 독자들은 그러한 은유에 의해 감동을 받는다. 이처럼 은유는 흔히 언어 표현에 대하여 뛰어난 직관을 가진 문학 작가들의 정신적 산물이라고 여겨진다. 서양 학문의 전통에서는 은유가 주로 수사학이나 논리학의 대상으로 다루어졌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에는

‘은유는 운문과 산문에서 모두 커다란 가치에 속한다’고 기술되어 있으며¹⁾, 『시학』에는 ‘은유는 해당 사물에 대하여 다른 어떤 것에 속하는 이름을 부여하는 데 있다’고 설명되어 있다²⁾.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은유는 거의 언어학의 연구 대상이 되지 않았다. 그런데 Avec son charisme et ses belles paroles, Erwan a fait tourner la tête de ma cousine³⁾의 faire tourner la tête de quelqu’un이나 Un homme a perdu la tête et a menacé avec un fusil plusieurs personnes dans la rue⁴⁾의 perdre la tête에서 tête가 은유적 의미를 가지는 것은 시적 감수성의 결과라고 볼 수 없다. 사실, 우리는 특별히 인식하지 못한 채 일상 언어에서 위와 같은 은유 표현들을 자유자재로 사용하고 있다. 은유에 대하여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레이코프와 존슨(Lakoff & Johnson)의 ‘개념적 은유’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써 은유 표현들이 언어학의 분석 대상이 된다는 입장을 다음 장에서 소개하겠다. 제3장에서는 인지언어학의 방법론 가운데 하나인 혼성 이론의 기본 원리를 예시와 함께 소개하고, 레이코프와 존슨의 접근을 기초로 인지언어학의 원리를 이용하여 흥미로운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는 혼성 이론의 은유 표현 분석을 살펴보겠다. 마지막으로, 프랑스어 tête가 쓰인 은유 표현들 가운데 casser la tête와 se casser la tête의 은유적 의미를 혼성 이론을 통하여 분석하도록 하겠다.

II. 개념적 은유와 인지언어학

은유의 전통적 정의부터 매우 간략하게 정리하고 ‘개념적 은유’에 대한

1) Aristotle, Edited by Jonathan Barnes, *The Complete Works of Aristotle*, The revised Oxford Translation, Volume Two,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1995, p.2240, 1405a.

2) Aristotle, Edited by Jonathan Barnes, *The Complete Works of Aristotle*, The revised Oxford Translation, Volume Two,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1995, p.2332, 1457b.

3) *Précis, Les expressions idiomatiques*, 2008, p.157.

4) *Précis, Les expressions idiomatiques*, 2008, p.149.

여 살펴 보겠다. 웅거러 · 슈미트(2010[2006]⁵⁾: 170)에 따르면, 은유는 전통적으로 한 표현의 문자적 의미와 비유적 의미 사이의 유사성이나 비교의 개념에 근거를 두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은유는 ‘취의’(tenor), ‘매체’(vehicle), ‘토대’(ground)라는 세 가지 요소, 또는 비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자면 ‘설명되는 요소’, ‘설명하는 요소’, ‘비교의 기초’를 포함하는 세 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진 패턴으로 간주되었다. 예를 들어, 셰익스피어의 the eye of heaven 이라는 표현이 은유를 통해 태양을 나타내는 것이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The sun	is	the eye of heaven	(in respect of	shape, radiation, domination of face or sky, etc)
X	is like	Y	in respect of	Z
취의		매체		토대
‘설명되는 요소’		‘설명하는 요소’		‘비교의 기초’

이제, ‘개념적 은유’에 대하여 살펴보자. 앞 장에서 언급했듯이, 은유가 우리의 일상 언어에 널리 퍼져있음은 물론이고 사고의 세계에 만연되어 있다는 주장은 레이코프와 존슨이 1980년에 자신들의 저서 『삶 속의 은유』(*Metaphor we live by*)에서 제시한 것으로, 그러한 관점에서 본 은유를 흔히 ‘개념적 은유’라고 부른다. Lakoff & Johnson(2003[1980]: 3)에 따르면, 은유는 일상적 삶에 널리 퍼져 있으며,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기준인 일상의 개념 체계가 근본에 있어서 본성 자체로 은유적이다.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 우리가 경험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행동하는 것의 매우 많은 부분이 은유적이다. 다시 말하면, 은유는 생각을 언어로 표현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사물에 대해 생각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은유는 ‘인지적 도구’의 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 있다. 예를 들면, Lakoff & Johnson(2003[1980]: 7)은 우리가 은유 {시간은 돈이다}⁶⁾를 언어적으로 이용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근원 개념(source)인 돈의 관점에서 목

5) 각괄호 안에 표기된 연도는 초판 또는 원본의 발행 연도이다.

6) 이 논문에서는 은유 표현을 { }로 표기한다.

표 개념(target)인 시간에 대해 생각하거나 그것을 개념화한다고 설명한다.

개념적 은유의 예시로서, ‘논증’, ‘논쟁’, ‘논거’라는 추상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영어 argument가 어떻게 개념화되는지 살펴보자. Lakoff & Johnson (2003[1980]: 90)은 argument에 대한 개념화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은유에 기초를 둔다고 분석한다.

{argument는 여행이다}

{argument는 전투이다}

{argument는 건물이다}

{argument는 그릇이다}

첫째, 여행은 준비, 출발, 경유지, 도착 등의 과정을 갖는다. 그러므로 여행 은유는 argument의 추상적 의미 가운데 ‘논증’에 대하여 논증의 진행을 개념화하는 데 기여한다. This observation points the way to an elegant solution의 point the way와 같은 표현이 여행 은유에 기초한 것이다. 이러한 논증의 경과는 경로 영상 도식에 근거한 사상 범위에 토대를 둔다. 둘째, 공격과 방어, 승리와 패배, 반격과 휴전 등의 구체적 구성 요소를 지니고 있는 전투는 추상적 의미인 ‘논쟁’의 세기나 힘을 개념화하는 데 유용하다. 전투와 논쟁의 유사성은 He shot down all my arguments나 He withdrew his offensive remarks와 같은 문장에 잘 나타나 있다. 셋째, 건물 은유는 추상적 의미인 ‘논거’의 자질에 초점을 맞춘다. 예를 들어, 논거의 견고함과 허약함이 건물 은유에 기초하여 If you don't support your argument with solid facts, its whole structure will collapse에 표현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그릇 은유는 추상적 개념인 ‘논거’의 내용 자체를 개념화하는 데 사용된다. 즉, Your argument doesn't have much content나 That argument has holes in it에서 논거가 내용물을 담는 그릇으로 간주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릇 은유는 내부-외부 영상 도식에 기초를 두는 사상 범위 안에서 기능한다.

인지언어학도 은유에 대하여 이와 동일한 관점을 갖는다. 우리는 추상적인 현상(목표 개념)을 개념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세계의 개념(근원 개념)에 의존한다. 본질상 함께 속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두 개념 사이의 연결이 이런 식으로 확립된다. 근원 개념과 목표 개념은 고립적으로 생각되는 것이 아니

라 ‘인지 모형’과 ‘문화 모형’에 깊이 새겨져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은유는 개별 개념 속의 고유한 특성뿐만 아니라 전체 인지 모형의 구조나 내적 관계, 논리를 전이시킨다. 인지언어학자들은 수학자들이 지도 작성법에서 차용하여 사용하는 용어인 ‘사상(寫像)’을 통해 이러한 전이를 근원 모형에서 목표 모형으로의 사상이라고 부른다. 즉, 인지언어학의 관점에서 볼 때 은유는 근원 모형의 구조를 목표 모형으로 사상하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개념과 인지 모형 사이의 구분이 종종 모호하기 때문에 인지언어학에서는 ‘근원 개념’과 ‘목표 개념’이라는 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한다. 즉, 인지언어학에서는 은유에 대한 전통적 관점의 취의를 목표 개념으로 간주하고, 매체를 근원 개념으로 간주한다. 이렇듯이, 인지언어학은 은유에 대하여 레이코프와 존슨의 개념적 관점을 공유한다. Langacker(1999: 3)는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은유는 인지 발전에서 핵심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보통 단지 수사적 도구로 고려되어 의미론의 영역 밖에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은유가 사실은 인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널리 퍼져 있는 현상이며 특정 언어 표현들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⁷⁾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Langacker(1987: 1)는 현재 언어학 이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형식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개념적 기초의 수준에 대한 것이며, 관용어, 은유, 의미 확장을 포함하는 비유적 언어의 문제가 개념적 기초에 대한 것인데 현재 언어학 이론들은 보통 비유적 언어를 무시한다고 평가한다. 그리하여 비유적 언어를 자연적인 것으로 여기는, 즉 특별히 문제가 있는 현상이 아니라 예상되는 현상으로 여기는 문법 구조를 구상하고 기술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다시 말하면, 언어 분석에 있어서 적절한 개념적 기초 작업은 비유적 언어를 문제로 여기지 말고 해결책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는 태도를 가진다.

7) 논지의 명확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인용문의 원문을 각주에 제시하겠다.

Metaphor is deemed essential to cognitive development. Though often regarded as merely a literary device (hence outside the scope of linguistic semantics), it is in fact pervasive in human understanding and independent of specific linguistic expressions.

III. 개념적 혼성과 의미 구성

이번에는 레이코프와 존슨의 개념적 은유를 기초로 은유에 대하여 흥미로운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는 개념적 혼성의 구성 원리를 알아보자. 개념적 혼성에 대하여 김동환(2013: 467)은 은유, 환유, 주관화 외의 또 다른 강력한 인지 과정으로서, 이를 이용해 언어의 의미 구성 방식을 다루는 인지언어학의 한 가지 방법론이라고 소개한다. 이 장에서 앞으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개념적 혼성은 입력 공간 구축, 공간 횡단 사상, 투사로 이루어진 다소 복잡한 인지 과정이다. 먼저, 입력 공간들 사이에서 부분적 공간 횡단 사상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입력 공간에 공통된 총칭 공간에 의해 한정된다. 다음으로, 입력 공간의 요소들이 혼성 공간에 선택적으로 투사되어 새로운 출현 구조가 형성된다. 이러한 출현 구조가 바로 의미 구성의 실마리가 된다.

인간의 의미 구성 능력에 대한 기본 가정을 설명하기 위하여 Fauconnier & Turner(2002: 4)는 아킬레우스의 갑옷에 대한 일화를 소개한다. 파트로클로스는 트로이 사람들과 전투를 벌이게 되었을 때 아킬레우스의 갑옷을 입고 전장에 나간다. 트로이 사람들의 눈에 띈 것은 그 눈부신 갑옷이었고, 그들은 당연히 그것이 아킬레우스라고 생각하여 공포에 사로잡혔다. 그래서 갑옷만으로 전세가 바뀌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아킬레우스의 갑옷일 뿐이며 진짜 아킬레우스가 아니라는 것을 트로이 사람들이 눈치 채는 데 오래 걸리지 않았고, 그러자 그들은 무자비하게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21세기에 사는 우리들도 의미를 구성하는 인간의 무의식적이고 보이지 않는 능력을 형태가 기적처럼 활용한다는 것을 마치 트로이 사람들처럼 깨닫게 되었다. 형태가 아킬레우스의 갑옷이며, 의미는 갑옷을 그토록 굉장한 존재로 만드는 아킬레우스인 것이다. Fauconnier & Turner(2002: 5)는 형태와 의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형태는 의미를 제공하지 않는다. 대신, 의미를 관통하는 규칙성을 알아챈다. 형태는 의미를 촉발하지만, 의미 촉발이라는 자신의 임무에 맞춰져야 한다. 마치 아킬레우스의 갑옷이 그의 치수와 능력에 맞게 만들어졌듯이 자신의 임무에 맞춰져야 하는 것이다. 아킬레우스의 갑옷을 갖는 것

이 아킬레우스를 갖는 것은 절대 아니다. 마찬가지로, 형태를 갖는 것(심지어 모든 것을 1과 0으로 변형시키는 것과 같은 복잡한 변형 형태를 갖는 것)은 그 형태가 맞추어졌던 그 의미를 갖는 것이 절대 아니다.⁸⁾

아킬레우스는 헤파이스토스에 의해 만들어진 갑옷을 얻었다. 그가 최고의 전사이었기 때문에 그 갑옷을 얻은 것이다. 갑옷은 최상의 것이 되려면 전사에게 맞춰져야 한다. 이와 똑같이, 인간은 가장 정교한 형태(언어, 수학, 음악, 미술)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의미를 구성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형태는 자신이 촉발하는 의미들에게 맞춰졌기 때문에 특히 인상적이지만, 혼자만으로는 텅 비어있다. 의미 구성에 대한 Fauconnier & Turner(2002: 6)의 다음과 같은 설명은 이러한 생각을 토대로 한 것이다.

갑옷 안에 있는 것은 절대로 하나의 사물이 아니라 잠재력이다. 이 잠재력은 트로이 사람들에게 상황과 관계없이 상상에 의해 역동적으로 소환되어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와 똑같이, 형태 뒤에 있는 것은 절대로 하나의 사물이 아니라 의미를 구성하는 인간의 힘이라고 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이 힘도 상황과 관계없이 상상에 의해 역동적으로 소환되어 의미를 만들 수 있다.⁹⁾

일상 의미와 특별한 인간의 능력에 있어 핵심적인 것으로서 Fauconnier & Turner(2002: 6)는 동일(identity)과 통합(integration)과 상상(imagination)

8) Form does not present meaning but instead picks out regularities that run throughout meanings. Form prompts meaning and must be suited to its task, just as the armor of Achilles had to be made to his size and abilities. But having the armor is never having Achilles; having the form - and indeed even the intricate transformations of forms (all those 1s and 0s) - is never having the meaning to which the form has been suited.

9) What is in the armor is not a thing at all but a potential force that, no matter the circumstances, can be unleashed dynamically and imaginatively upon the Trojans to lethal effect. Just so, what is behind form is not a thing at all but rather the human power to construct meanings. It, too, no matter the circumstances, can be unleashed dynamically and imaginatively to make sense.

이라는 인지 능력을 제시한다. ‘동일’은 상상에 의한 복합적이고 무의식적인 작업의 산물이다. 한편, 동일과 대립을 발견하는 것은 개념적 ‘통합’이라는 훨씬 더 복잡한 과정의 한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상상’이 없이는 동일과 통합이 의미와 의미의 전개 과정을 설명할 수 없다. 이 세 개의 기본 인지 능력 가운데 통합에 대하여 Fauconnier & Turner(2002: 15)는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우리는 통합이 언어, 미술, 행동, 계획 수립, 논리, 선택, 판단, 결정, 익살, 수학, 과학, 미술, 의례, 그리고 일상의 가장 단순한 정신적인 일들에 있어서 기본적인 정신 활동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보이려 한다.¹⁰⁾

지금부터, 이와 같은 통합을 가장 중요한 활동으로 고려하고 있는 개념적 혼성 이론의 기본 원칙들과 함께 개념적 통합 연결망 모델(network model of conceptual integration)을 소개하려 한다. 개념적 분석과 인지적 원리를 언어 연구의 중심으로 삼는 인지언어학의 전개에 있어서 정신 공간(mental space)의 개념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Fauconnier & Turner(2002: 40)는 정신 공간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정신 공간은 우리가 지엽적 이해와 활동을 위하여 생각을 하고 말할 때 구성되는 작은 개념 꾸러미이다.¹¹⁾

이와 같은 정신 공간을 기초로 구성되는 개념적 통합 연결망 모델을 이해하기 위하여 다음 수수께끼를 풀어보자.

승려 한 명이 동이 틀 무렵에 산을 올라가기 시작하여 해질녘에 꼭대기에 다다른다. 꼭대기에서 며칠 동안 명상을 하고 나서, 동이 틀 무렵에 산기슭으로 다시 걷기 시작하여 해질녘에 산기슭에 다다른다. 이러한 여

10) [...] we will see it at work as a basic mental operation in language, art, action, planning, reason, choice, judgment, decision, humor, mathematics, science, magic and ritual, and the simplest mental events in everyday life.

11) Mental spaces are small conceptual packets constructed as we think and talk, for purpose of local understanding and action.

정에서 승려의 출발이나 정지, 또는 그의 걸음 속도에 대해서는 아무 가정도 하지 말고, 다음 수수께끼를 풀어보자. 같은 길을 오고가는 이러한 두 개의 서로 다른 여정에 있어서, 이 승려가 올라갈 때와 내려올 때 0시부터 24시 가운데 어떤 같은 시각에 차지하는 동일한 지점이 존재하는가?¹²⁾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 Fauconnier & Turner(2002: 39)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생각해 볼 것을 제안한다. 즉, 이 승려가 어느 날 산에 올라가서 며칠 후에 내려오는 것으로 생각하는 대신에 오르는 여정과 내려오는 여정이 한 날 한 시에 이루어진다고 상정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한 명의 동일한 승려가 동틀 녘에 산기슭에서 꼭대기를 향해 출발하는 동시에 산꼭대기에서도 기슭을 향해 출발하고, 해질녘에 산꼭대기에 도달하는 동시에 산기슭에 도달하는 것을 상상해보자. 그렇다면, 올라가는 승려가 내려오는 자기 자신을 만나는, 또는 내려가는 승려가 올라오는 자기 자신을 만나는 장소가 반드시 있을 것이고, 그곳이 수수께끼에서 찾는 지점이다. 이러한 장소가 존재함으로써 이 수수께끼가 풀리는 것이다.

위와 같은 사고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 수수께끼에 대한 설득력 있는 해결책이지만, 이 해결책이 수수께끼 풀이보다 좀 더 큰 이론적 문제를 제기한다. 오르는 여정과 내려오는 여정을 위와 같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러므로 저 승려가 자기 자신을 만날 수 없다는 근본적 문제가 생긴다. 그런데, Fauconnier & Turner(2002: 39)는 이 상상 속의 불가능한 사실을 창조하는 것이 우리가 찾고 있는 진실을 제공해 주며, 우리는 위와 같은 상상이 실현 가능하지 실현 불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고 기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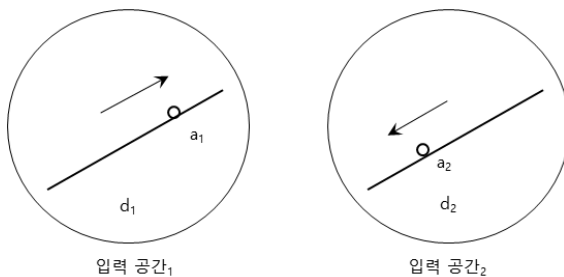
승려의 수수께끼에서 우리는 산을 오르는 것에 대한 하나의 정신 공간을 가지고 있으며, 산을 내려오는 것에 대한 또 다른 하나의 정신 공간을 가지

12) A Buddhist Monk begins at dawn one day walking up a mountain, reaches the top at sunset, meditates at the top for several days until one dawn when he begins to walk back to the foot of the mountain, which he reaches at sunset. Make no assumptions about his starting or stopping or about his pace during the trips. Riddle: Is there a place on the path that the monk occupies at the same hour of the day on the two separate journeys?

고 있다. 정신 공간들은 ‘틀(frame)’이라고 불리는 장기 기억 속의 지식과 연결되어 있다. 예를 들면, 승려 수수께끼의 정신 공간들은 ‘길을 따라 걷다’는 틀과 연결되어 있다. Fauconnier & Turner(2002: 40)는 정신 공간들이 매우 부분적이며, 구성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고 전형적으로 틀에 의해 구성된다고 기술한다. 또한, 정신 공간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사고와 담화가 펼쳐짐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이 정신 공간들이 일반적으로 사고와 언어에 있어서 역동적 사상(寫像)을 형성하는 데 쓰인다고 그 역할을 규정하며, 승려의 수수께끼를 통하여 개념적 통합 연결망 모델의 구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언어 분석에 있어서 정신 공간과 혼성을 이야기할 때 흔히 그림을 사용한다. 그림에서 정신 공간은 원, 구성 요소(원 안에 있는 점 또는 약화(略畫)로 표현), 다른 공간에 있는 구성 요소들 사이의 연결(선으로 표현)로 표상된다. 개념적 통합 연결망을 나타내는 이러한 그림은 입력 공간, 공간 횡단 사상(寫像), 총칭 공간, 혼성으로 구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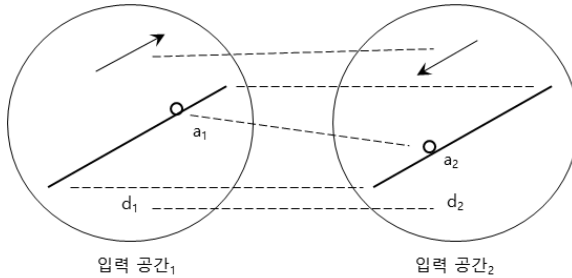
우선, 승려의 수수께끼에는 두 개의 입력 공간이 존재한다. 아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각 입력 공간은 산을 오르는 여정과 산에서 내려오는 여정에 해당한다. 산을 오르는 날은 d_1 , 산에서 내려오는 날은 d_2 , 오르는 승려는 a_1 , 내려오는 승려는 a_2 이다.



[그림 1] 입력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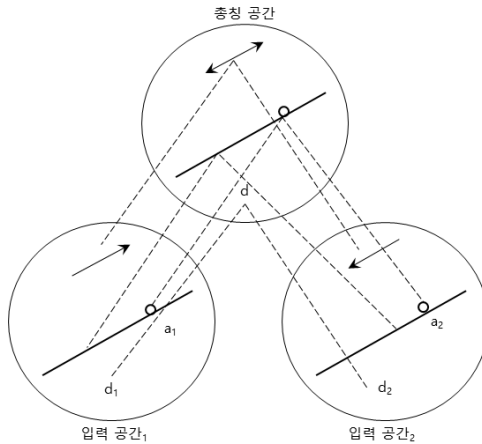
다음으로, 부분적 공간 횡단 사상이 두 개의 입력 공간에 있는 대응 구성 요소들을 연결한다. 즉, 아래 그림에 나타나듯이, 공간 횡단 사상을 통해 하나의 정신 공간에 있는 산, 움직이는 개체, 산행이 이루어지는 날, 움직임이

또 다른 정신 공간에 있는 산, 움직이는 개체, 산행이 이루어지는 날, 움직임과 연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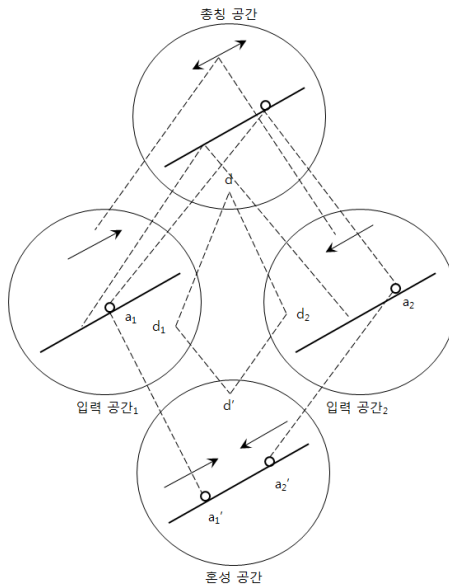
[그림 2] 공간 횡단 사상

셋째, 총칭 공간은 각 입력 공간과 사상을 이루며, 입력 공간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 공통되는 것은 다음 그림에 나타나 있는 움직이는 개체와 그의 위치, 산의 기슭과 꼭대기를 잇는 길, 산행이 이루어지는 날, 방향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움직임(방향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 그림에서 양방향 화살표로 표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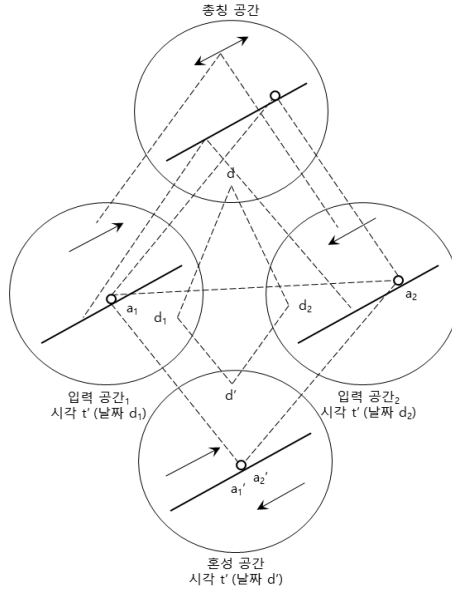
[그림 3] 총칭 공간

마지막으로 혼성 공간이 존재한다. 혼성 공간에서는 입력 공간에 있는 두 개의 산길(산)이 단 하나의 산길로 투사된다. 마찬가지로, 산행이 이루어진 날인 d_1 과 d_2 가 융합되어 단 하나의 날짜로 투사된다. 그러나 움직이는 개체와 그 위치는 움직임의 방향이 보존된 채 해당 시각에 맞추어 투사되기 때문에 융합되지 않는다. 입력 공간₁은 산을 오르는 여정 전체를 역동적으로 나타내며, 입력 공간₂는 산을 내려오는 여정 전체를 역동적으로 나타내기 때문이다. 즉, 혼성 공간으로의 투사는 시간과 위치를 보존한다. 그러므로 시각 t 와 날짜 d' 을 가지고 있는 혼성 공간은 날짜 d_1 의 시각 t 에 a_1 이 자리하고 있는 위치에 존재하는 a_1 과 더불어, 날짜 d_2 의 시각 t 에 a_2 가 자리하고 있는 위치에 존재하는 a_2 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4] 혼성 공간

이와 같은 개념적 혼성은 출현 구조(emergent)를 만들기 위한 인지 작용이고, 출현 구조를 통하여 비로소 언어 표현의 의미를 구성할 수 있게 된다. 즉, 합성(composition), 완료(completion), 정교화(elaboration)를 통하여 혼성 공간은 입력 공간에 존재하지 않는 출현 구조를 다음과 같이 개발한다. 첫째, 입력 공간들로부터 나온 구성 요소들이 혼성 공간으로 ‘합성’됨으로써 각각의 입력 공간에는 존재하지 않는 관계들이 혼성 공간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즉, 각 입력 공간에는 움직이는 개체가 하나만 존재하는 반면에, 혼성 공간에는 움직이는 개체가 두 개 존재하게 된다. 이 두 개의 개체는 산길의 양쪽 끝에서 출발하여 서로를 향해 움직이고 있다. 또한, 이 둘은 같은 날 d'에 산에서 이동하는 것이므로 이동 중의 어느 때든지 각각의 위치가 비교될 수 있다. 둘째, ‘완료’는 길의 양쪽 끝에서 서로를 향해 동시에 걷기 시작하는 익숙한 구조를 혼성 공간에 추가로 도입한다. 이 과정에서 혼성 공간이 통합된다. 승려 수수께끼의 혼성 공간은 두 사람이 길의 양 끝으로부터 서로를 향해 걷는 익숙한 틀에 대한 하나의 실제 상황이 되는 것이다. 혼성 공간이 이와 같이 통합되므로 이 과정이 ‘완료’라고 불릴 수 있다. 이러한 익숙한 틀 덕분에 우리는 이제 시나리오를 역동적으로 작동시킬 수 있다. 즉, 혼성 공간 안에서 두 사람이 길을 따라 걷게 된다. ‘정교화’라고 불리는 이와 같은 혼성 공간의 작동은 혼성 공간을 상상에 의해 변화시킨다. 즉, 두 사람이 실제로 만나는 것이다. 이것은 새로운 구조이다. 두 개의 입력 공간에서는 입력 공간이 역동적으로 작동되더라도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새롭다는 것이다. Fauconnier & Turner(2002: 44)는 승려 수수께끼에 대하여 앞에서 제시한 풀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혼성 공간에 있는 두 사람은 두 개의 입력 공간에 있는 ‘동일한’ 승려에게 다시 뒤로 투사된다. 또한, 만나는 장소는 각 입력 공간에 있는 길의 ‘동일한’ 위치로 다시 뒤로 투사된다. 혼성 공간에서 그들이 만나는 시각은 입력 공간에서 승려가 그 위치에 있는 시각과 동일하다. 이렇게 다시 뒤로 투사되는 사상을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5] 입력 공간으로 다시 뒤로 사상

IV. 은유에 대한 혼성적 접근과 (se) casser la tête의 분석

1. 은유에 대한 혼성적 접근

은유를 개념적 현상으로 여기는 Langacker(1999: 3)는 은유를 통하여 목표 영역이 보다 기초적인 또 다른 영역인 원천 영역을 참조하여 구성되고 이해된다고 설명하며, Langacker(2009: 342)는 은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은유에 있어서 하나의 영역을 이해하기 위해서 경험에 해당하는 또 다른 영역을 상정한다. 뒤엎것을 원천 영역으로, 앞엎것을 목표 영역으로 부른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은유가 구조적 유사성에 부분적으로 근거하고 있다는 것이다.¹³⁾

은유를 이와 같이 여기고 있다는 것은 원천 영역과 목표 영역의 요소들 사이에 대응(사상)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뜻하며, 두 영역에 있는 대응 요소들 사이에 병렬적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관찰한다는 뜻이다. 또한, Langacker (2008: 35-36)는 우리의 정신세계를 향상시키고 심지어 구성하는 주요한 방법이 은유라고 역설하며, 은유는 한 개념 영역(흔히 신체의 경험에 더욱 직접적으로 기반을 두고 있다)의 기초 조직 형상이 다른 개념 영역으로 투사됨으로써 이루어진다고 기술한다.

한편, Langacker(1999: 3)는 은유가 혼성의 특별한 경우라고 여긴다. 두 개의 입력 공간에 있는 요소들이 혼합물인 제3의 공간을 형성하며, 이 제3의 공간은 자신만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혼성은 정신 공간 구성의 특별한 경우이다. 즉, 분리되어 있는 ‘작용 공간’ 안으로 개념 내용이 조직되며, 이 작용 공간들은 구성 요소들 사이의 대응을 통해 연결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Langacker(2008: 36)에서도 은유는 혼성을 이루는 하나의 원천이라고 기술하며, 두 개념에서 선택된 형상들이 혼성에 의해 결합되어 제3의 개념을 형성한다고 여긴다. Langacker(2008: 41)는 인상적으로 풍부한 우리의 상상 능력이 혼성을 이루는 또 다른 원천이라고 말하며, 이 능력은 은유, 혼성, 가상, 정신 공간과 같은 도구로 드러난다고 기술함으로써 앞 장에서 살펴 본 Fauconnier & Turner(2002)와 동일한 입장을 보인다.

이제, 제2장의 개념적 은유와 제3장의 개념적 혼성 사이의 이론적 차이를 간략히 살펴보고, 개념적 혼성 이론을 통해 은유가 의미를 구성하는 방식에 대하여 논의하도록 하겠다. 김동환(2013: 593)은 은유에 대한 두 가지 접근 방식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첫째, 개념적 은유 이론은 두 영역 사이의 사상을 가정하는 반면, 개념적 혼성 이론은 네 개의 정신 공간을 가정한다. 둘째, 개념적 은유 이론은 은유 해석을 엄격하게 한 쪽 방향으로만 이루어지는 사상으로 간주하는 반면, 개념적 혼성 이론은 양 쪽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사상으로 간주한다. 셋째, 개념적 은유 이론의 분석은 완전히 고착된 개념적 관계에 의해

13) In metaphor, we invoke oen domain of experience, a source domain, to apprehend another, the target domain. What is important here is that metaphor is partially based on structural analogy.

진술되는 반면, 개념적 혼성 이론에서는 개념적 혼성이 동적인 과정임을 강조한다.

또한, 김동환(2013: 613)에서는 개념적 은유 이론이, 예를 들면, 두려움의 경우에 {두려움은 적이다}와 같은 추상적인 개념적 은유 자체에 초점을 두는 반면, 개념적 혼성 이론은 개념적 은유로 생성되고 이해되는 개별 표현의 은유적 의미가 구성되는 방식에 초점을 둔다고 설명한다. 마찬가지로, 웅거러·슈미트(2010[2006]: 360)도 개념적 은유 접근법은 장기 기억 속에 저장된 인지 모형으로 작용하는 반면에, 혼성 접근법은 인지 모형에 기초를 두긴 하지만 실시간 처리가 이루어지는 동안에 구성되는 정신 공간을 통해 작용한다고 기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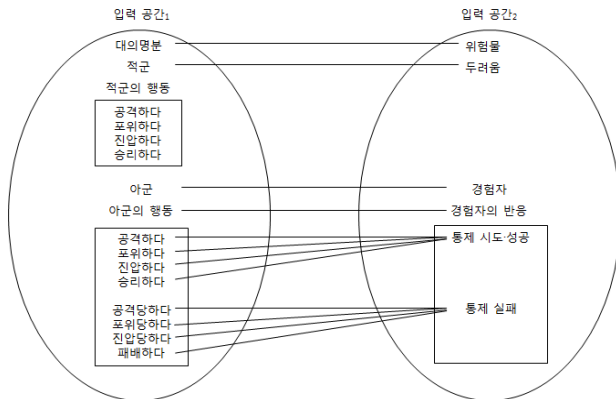
지금부터는 개념적 혼성 이론을 통하여 일상 은유의 의미가 구성되는 방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일상 은유 가운데 {두려움은 적이다}에 대한 김동환(2013: 595-613)의 분석을 참고하여, 이 은유가 나타나 있는 구체적인 표현을 분석함으로써 언어적 은유의 의미 구성 방식을 소개하겠다. 언어적 은유의 의미 구성 방식에 대하여 김동환(2013: 602)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언어적 은유의 의미 구성 방식을 개념적 혼성 이론으로 설명한다는 것은 해당 언어적 은유에 대한 입력 공간 구축, 입력 공간 사이의 사상, 입력 공간에서 혼성공간으로의 투사라는 세 가지 하위 인지 과정의 작용 방식을 보여줌을 뜻한다.¹⁴⁾

개념적 혼성의 첫 번째 단계로서 입력 공간 구축부터 다루어 보자. 우선, {적} 은유는 {전쟁} 은유를 떠올리게 하므로 {전쟁} 틀에 입각하여 입력 공간을 다음과 같이 구축할 수 있다. 전쟁의 발발에 대해서 어느 편에서든 각자의 대의명분을 제시한다. 전쟁이 개시되고 나면, 적군은 아군을 공격하고, 포위하고, 진압하고, 승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에 대하여 아군은 공격당하고, 포위당하고, 진압당하고, 패배할 수도 있으며, 반대로 아군이 그러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승리할 수도 있다. 다음으로, {두려움}에 대한

14) 그러므로 은유에 대한 분석을 나타내는 개념적 통합 연결망 그림에서는 흔히 총칭 공간이 생략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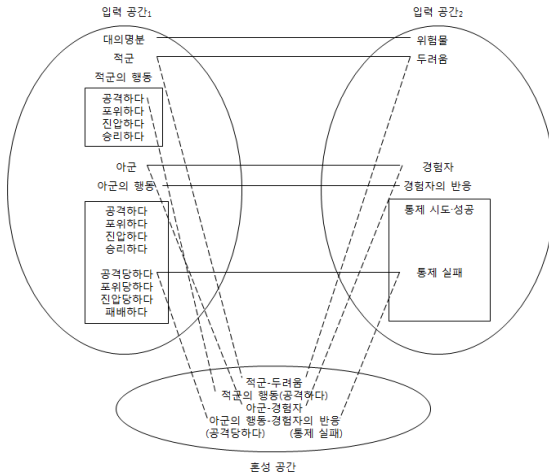
입력 공간₂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김동환(2013: 602)은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대해 사람들은 유사한 생리적·행동적 반응을 보이며,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생기는 데는 두려움을 유발시키는 상황이 있기 마련이라고 기술함으로써 ‘위험물’과 ‘두려움’을 입력 공간₂의 구성 요소로 제시한다. 또한,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은 그 두려움을 통제하려고 시도하거나 시도하여 성공할 수도 있고, 아니면 통제에 실패할 수도 있으므로 입력 공간₂의 또 다른 구성 요소로 ‘경험자’, ‘경험자의 반응’을 제시한다. 다음 단계로, 개념적 혼성의 두 번째 하위 과정인 공간 횡단 사상에 대하여 생각해 보자. 입력 공간₁의 ‘대의명분’, ‘적군’, ‘아군’, ‘아군의 행동’이 각각 입력 공간₂의 ‘위험물’, ‘두려움’, ‘경험자’, ‘경험자의 반응’으로 사상된다. 여기에서, ‘아군의 행동’에 있는 행동들 가운데 ‘공격하다’, ‘포위하다’, ‘진압하다’, ‘승리하다’는 ‘경험자의 반응’에 있는 두 개의 반응 가운데 ‘통제 시도·성공’으로 사상되며, ‘공격당하다’, ‘포위당하다’, ‘진압당하다’, ‘패배하다’는 ‘통제 실패’로 사상된다. 은유 {두려움은 적이다}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펴본 두 개의 입력 공간 구축과 그 사이의 공간 횡단 사상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6] 은유 {두려움은 적이다}의 입력 공간과 공간 횡단 사상

이렇게 구축된 두 개의 입력 공간과 그 사이의 공간 횡단 사상을 토대로 ‘그녀는 두려움의 공격을 받았다’와 ‘그녀는 두려움을 진압했다’라는 표현에서 나타나는 은유의 의미 구성 방식을 분석해 보자. 의미 구성은 개념적

혼성의 마지막 단계로서 입력 공간에서 혼성 공간으로의 선택적 투사에 의해 이루어진다.¹⁵⁾ 우선, ‘그녀는 두려움의 공격을 받았다’라는 표현에서 보이는 선택적 투사는 다음과 같다. 입력 공간₁의 ‘적군’, ‘아군’, ‘아군의 행동(공격당하다)’과 입력 공간₂의 ‘두려움’, ‘경험자’, ‘경험자의 반응(통제 실패)’이 혼성 공간으로 투사되어 융합되고, ‘적군의 행동(공격하다)’이 단독으로 혼성 공간에 투사된다. 이러한 선택적 투사에 의해 의미 구성이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적군-두려움과 아군-경험자가 존재하며, 적군이 아군을 공격하는데 이는 두려움이 경험자를 공격함으로써 경험자가 두려움을 느끼고 통제를 실패하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선택적 투사를 통해 이루어진 개념적 통합 연결망을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¹⁶⁾ 이는 영어의 She was attacked by fear와 프랑스어의 Elle a été envahie par la peur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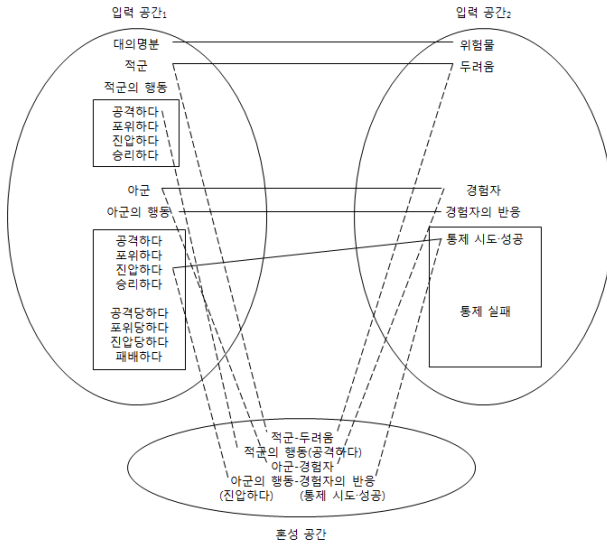


[그림 7] ‘그녀는 두려움의 공격을 받았다’의 개념적 통합 연결망

15) 두 표현에 있어서 모두 입력 공간₁의 ‘대의명분’과 입력 공간₂의 ‘위험물’은 표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혼성 공간으로 투사되지 않는다.

16) 앞에서 언급했듯이, 실제 언어 표현의 은유적 의미가 혼성 공간에서 구성되는 것을 보여 주는 개념적 통합 연결망에 대한 분석에 총칭 공간은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그림에서 총칭 공간은 나타내지 않는다.

다음으로, ‘그녀는 두려움을 진압했다’는 혼성 공간으로 다음과 같이 선택적 투사가 이루어짐으로써 은유적 의미가 구성된다. 우선, 앞의 표현과 마찬가지로 입력 공간₁의 ‘적군’, ‘아군’과 입력 공간₂의 ‘두려움’, ‘경험자’가 혼성 공간으로 투사되어 융합된다. 반면, 이 둘째 표현에서는 첫째 표현에서와 달리 ‘아군의 행동(진압하다)’과 ‘경험자의 반응(통제 시도·성공)’이 혼성 공간으로 투사되어 융합된다. 한편, 첫째 표현과 마찬가지로 ‘적군의 행동(공격하다)’은 단독으로 혼성 공간으로 투사된다. 이처럼 선택적 투사가 이루어짐으로써 다음과 같이 의미가 구성되는 것이다. 적군-두려움과 아군-경험자가 존재하며, 적군의 공격에 맞서 아군이 통제를 시도하여 성공함으로써 적군을 진압한 것이다. 영어의 She suppressed her fear와 프랑스어의 Elle a surmonté sa peur의 의미도 이와 마찬가지로 구성된다. 이러한 의미 구성을 개념적 통합 연결망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8] ‘그녀는 두려움을 진압했다’의 개념적 통합 연결망

2. 개념적 혼성 이론을 통한 (se) casser la tête의 분석

지금까지 살펴본 개념적 혼성의 이론적 배경과 혼성의 개념을 통한 은유적 의미의 구성 원리를 토대로 *casser la tête*와 *se casser la tête*라는 표현의 의미가 은유적으로 어떻게 구성되는지 분석하려한다. 우선, 표제어 *tête*에 대한 『프티 로베르 사전』(*Le Nouveau Petit Robert*)의 기술을 정리함으로써 *tête*의 문자적 의미와 비유적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다음으로, *tête*에서 보이는 은유 가운데 {머리는 그릇이다}라는 개념적 은유가 *casser la tête*와 *se casser la tête*라는 실제 표현에서 어떤 은유적 의미를 가지게 되는지 분석하겠다.

2-1. 표제어 *tête*에 대한 『프티 로베르 사전』의 기술과 비유적 의미

표제어 *tête*에 대하여 『프티 로베르 사전』은 다음과 같이 크게 여섯 부류로 나누어 그 의미를 기술한다. 첫째 부류는 인간이나 동물의 신체 부위로서 머리의 여러 부분, 그로부터 유래된 추상적 작용, 머리를 연상시킬 수 있는 모양의 것 등을 포함한다. 다음으로 *tête de mort*를 둘째 부류로 제시한다. 셋째 부류의 표현들은 인간에게 있어서 사고(思考)의 중추인 머리를 나타낸다. 넷째 부류에서는 *tête*가 인간이나 동물의 개체를 가리킨다. 다섯째 부류와 여섯째 부류는 유추를 통해 의미를 구성하는 표현들로서 각각 상황과 형태에 의한 유추와 동물 이동의 우두머리로부터 이루어진 유추에 의하여 의미가 구성된다.

각 부류의 하위 부류들을 살펴보자. 첫째 부류는 모두 열 한 개의 하위 부류로 나뉜다. 일반적인 동물의 머리부터 제시하고, 다음으로 특히 인간의 머리를 제시한다. 그리고 머리에서 머리카락이 나는 부분인 두피, 생명 유지에 필수적 부분을 뜻하는 머리, 그리고 얼굴을 각각 따로 하위 부류로 분류한다. 이외의 다섯 개 하위 부류에는 *tête sculptée*와 같이 인간이나 고등 동물의 머리를 표상한 것들, *Il a une tête de plus qu'elle*에서 쓰인 것과 같은 머리의 높이나 크기, *un bal de têtes*의 분장한 얼굴 등과 같은 표현들이 속한다.

둘째 부류는 이후의 나머지 부류들이 추상이나 유추를 통해 형성된 의미

들을 묶은 것과 달리 원천적인 첫째 부류의 신체 부위에서 상대적으로 직접 유래된 *tête de mort*만을 포함하고 있다. 이 표현은 두개골 자체, 두개골을 종이나 천에 표상한 것, 두개골이 연상될 수 있는 빨간 껍질의 네덜란드 치즈를 나타낸다.

추상적 정신 작용을 나타내는 표현들을 묶은 세 번째 부류는 세 개의 하위 부류를 갖는다. 첫째 하위 부류는 사상, 기억, 판단의 중추로서 *une tête qui pense*, *avoir une tête sans cervelle*, *avoir de la tête* 등의 표현들을 포함한다. 둘째 하위 부류에는 심리적 상태의 중추(기질, 성격, 성질)를 나타내는 표현들인 *avoir la tête chaude*, *se monter la tête*, *perdre la tête* 등이 제시되어 있다. 셋째 하위 부류는 *avoir toute sa tête*, *Ça me prend la tête*, *être tombé sur la tête*와 같이 정신적 상태의 상징을 나타내는 *tête*가 사용된 성구들을 묶고 있다.

다음으로, 넷째 부류는 *tête*가 개인을 대표하거나 무리지어 있는 동물을 나타내는 표현들을 포함한다. 인간과 관계된 표현들을 하나의 하위 부류로 삼아 *attirer la haine sur sa tête*, *direction à deux têtes* 등을 제시하고, 동물과 관계된 *cent têtes de bétail*와 같은 표현들을 또 다른 하위 부류로 제시한다.

다섯째 부류는 인간이나 동물의 머리의 물리적 형태와 흡사하지는 않지만 상황과 형태에 의한 유추를 통해 사물의 둥근 모양을 하고 있는 윗부분이나 뚱뚱하고 둥근 끝 부분을 나타내는 표현들을 포함한다. 사물의 윗부분을 나타내는 하위 부류에는 *tête d'un arbre*나 *moteur à soupapes en tête* 등의 표현이 있고, 사물의 끝 부분을 나타내는 하위 부류에는 *tête d'ail*, *vis à tête frisée*, *tête de bielle*, *tête de lecture d'une platine tourne-disque* 등의 표현이 있다.

마지막으로, 여섯째 부류는 동물들이 이동할 때 선두에 서는 우두머리에서 유추된 표현들을 묶고 있다. 그 첫째 하위 부류에는 구체적으로 움직이는 사물의 앞부분을 가리키는 표현들이 있고, 둘째 하위 부류에는 추상적으로 선두 위치를 가리키는 표현들이 있다. 예를 들어, *tête d'un engin propulsé*, *tête d'un train*, *tête de ligne*, *tête d'affiche* 등이 첫째 하위 부류에 속하고, *prendre la tête d'un cortège*, *être à la tête de sa classe*, *article de tête d'un journal*, *personne à la tête d'une entreprise* 등이 둘째 하위 부류에 속한다.

이렇게 요약한 표제어 *tête*의 의미 기술과 분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동물과 인간의 신체 부위로서 머리	동물의 머리
	인간의 머리
	두피
	생명 유지에 필수적 부분
	이목구비와 표정으로서 얼굴
	기타: 머리의 표상, 크기, 분장한 머리 등
tête de mort	두개골 자체, 두개골을 종이나 천에 표상한 것, 두개골이 연상될 수 있는 빨간 껍질의 네덜란드 치즈
사고의 중추	사상, 기억, 판단의 중추
	심리적 상태의 중추
	정신적 상태의 상징
동물과 인간의 개체	개인, 인간을 대표
	무리지어 있는 동물
상황과 형태에 의한 유추	사물의 특히 둥근 모양의 앞부분
	사물의 뚱뚱하고 둥근 끝 부분
동물 이동의 우두머리로부터 유추	움직이는 사물이나 집단의 앞부분
	앞부분, 시작 부분에 위치하는 것

이와 같은 『프티 로베르 사전』의 분류와 의미 기술을 tête의 개념적 은유와 개념적 환유에 대한 강호균(2010)의 분석과 비교함으로써 tête의 비유적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¹⁷⁾ 사전의 셋째 부류의 첫 번째 하위 부류인 ‘사상·기억·판단의 중추’를 강호균의 개념적 은유 {머리는 그릇이고, 생각·지능은 물체이다}에 대응시킬 수 있다. 또, 셋째 부류의 세 번째 하위 부류에서 ‘정신적 상태의 상징’을 나타내는 것으로 제시된 성구들의 tête를 강호균은 {머리는 물체이다}라는 개념적 은유로 여기고 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부류인 ‘동물 이동의 우두머리로부터 유추’의 표현들은 강호균의 개념적 은유인 {물체의 선두는 머리이다}, {물체의 상단부는 머리이

17) 강호균(2010)은 앞에서 살펴 본 Lakoff & Johnson(2003[1980])의 이론을 토대로 tête가 보이는 개념적 은유와 개념적 환유를 분석한다. Lakoff & Johnson(2003[1980])의 이론은 앞에서 살펴보았으므로 여기에서는 분석의 이론적 측면과 분석 과정은 소개하지 않고 분석 결과만을 사전의 의미 기술과 비교한다.

다}, {추상 복합 체제의 통제자는 머리이다}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첫째 부류의 네 번째 하위 부류인 ‘생명 유지에 필수적 부분’은 강호균이 제시한 개념적 환유 {머리로 생명을 대신함}에 대응되고, 다섯 번째 하위 부류인 ‘이목구비와 표정으로서 얼굴’은 강호균의 개념적 환유 {머리로 얼굴을 대신함}에 대응된다고 볼 수 있다. 또, 넷째 부류의 하위 부류인 ‘개인, 인간을 대표’와 ‘무리지어 있는 동물’은 각각 개념적 환유 {머리로 사람을 대신함}과 {머리로 동물의 마리를 대신함}에 해당한다.

2-2. (se) casser la tête의 은유적 의미 구성

이제, 아래 예문에서 사용된 *casser la tête*와 *se casser la tête*의 의미를 분석하겠다.

1. a. Barbara m’a cassé la tête toute l’après-midi avec ses histoires de cœur.¹⁸⁾
- b. Le problème de mathématiques était très difficile. Je me suis cassé la tête pour trouver la solution.¹⁹⁾
- c. Hugues s’est cassé la tête longtemps mais il s’est finalement souvenu du titre de ce film.²⁰⁾

이 세 문장에 대하여 『관용 표현 해설』(*Précis, Les expressions idiomatiques*)은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우선, (1.a)에서 사용된 *casser la tête*는 ‘감정과 느낌’의 영역에서 ‘분노, 짜증’의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너무 말을 많이 하거나 너무 큰 소음을 냈으므로 사람을 성가시게 하다’는 의미가 제시되어 있다. (1.b)의 *se casser la tête*는 ‘상황’의 영역에서 ‘어려움과 문제’의 항목에 속해 있고, ‘스스로에게 많은 어려움을 부과하다’가 그 의미로 제시되어 있다. 반면에, (1.c)의 *se casser la tête*는 ‘인간의 행동과 관계’의 영역에서 ‘사고하다, 생각하다’의 항목에 속해 있으며, 그 의미로 ‘대단히 고민

18) *Précis, Les expressions idiomatiques*, 2008, p.50.

19) *Précis, Les expressions idiomatiques*, 2008, p.142.

20) *Précis, Les expressions idiomatiques*, 2008, p.1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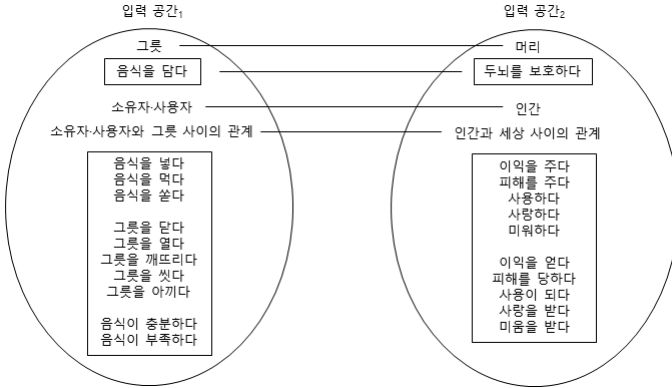
하다'가 제시되어 있다. 예문 (1.a.b.c)에서 쓰인 표현들은 모두 *casser la tête*로부터 구성되었지만, 『관용 표현 해설』은 방금 보았듯이 그 의미를 각기 다른 항목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표현들의 분석을 통하여 각 표현들의 은유적 의미 구성 방식을 밝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a)와 (1.b.c)의 의미 구성 방식의 비교를 통해 대명동사의 쓰임이 의미 구성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볼 수 있을 것이며, 또한 (1.b)와 (1.c)의 비교를 통해 동일한 표현이 다른 의미를 나타내는 것은 의미 구성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앞 절에서 『프티 로베르 사전』의 셋째 부류인 ‘사고의 중추’에 대하여 강호균(2010)의 {머리는 그릇이고, 생각·지능은 물체이다}와 {머리는 물체이다}라는 개념적 은유가 대응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릇 은유와 물체 은유는 레이코프와 존슨이 제시하는 대표적 은유이다. 예를 들어, Lakoff & Johnson(2003[1980]: 10)은 {Ideas (or meaning) are objects}와 {Linguistic expressions are containers}라는 개념적 은유를 제시하고 있다. (1.a.b.c)의 표현에 있어서도 머리를 정신 활동의 원천인 두뇌를 담고 있는 그릇으로 여기고 개념적 은유 {머리는 그릇이다}를 통해 그 표현들을 분석하겠다. 개념적 은유 {머리는 그릇이다}가 실제로 언어 표현에서 어떻게 은유적 의미를 가지게 되는지 개념적 혼성을 이론적 배경으로 삼아 분석하려는 것이다. 우선, 두 개의 입력 공간부터 구성하겠다. 입력 공간₁은 그릇에 대한 사항들이 구성 요소가 된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그릇’을 ‘음식이나 물건 따위를 담는 기구를 통틀어 이르는 말’로 정의한다. 이에 따라 입력 공간₁에서 그릇의 기능을 ‘음식을 담다’로 설정하였다. 또한, 그릇은 그것의 소유자나 사용자가 있으므로 ‘소유자·사용자’도 구성 요소로서 존재한다. 한편, 이 사전에서는 ‘그릇’에 대한 용례로 ‘음식을 그릇에 담아 먹다’, ‘그릇을 비우다’, ‘그릇을 부시다’, ‘그릇을 씻다’, ‘식사 후 그릇을 치우다’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 용례들에서 보이는 그릇의 쓰임을 비롯하여 그릇의 소유자나 사용자가 그릇에 대하여 가질 수 있는 경험들을 ‘소유자·사용자와 그릇 사이의 관계’로 묶어 놓았다. 다음으로 머리에 대한 사항들을 구성 요소로 하여 입력 공간₂를 구성하자. 표제어 *tête*에 대하여 『프티 로베르 사전』이 제시하고 있는 처음 두 개의 문자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

- 대칭 동물의 앞 쪽 말단 부위, 또는 직립 자세 동물의 위 쪽 말단 부위로 입과 주요 감각 기관을 지니고 있는 부위. 이 부위가 구별되고 인식될 수 있는 경우에 이렇게 부름.
- 두뇌와 주요 감각 기관을 가지고 있는 인간 신체의 위쪽 부위로 둥근 형태이며 목을 통하여 몸통에 붙어 있음.

이러한 문자적 의미에 입각하여 입력 공간₂에서는 머리의 주요 기능으로 ‘두뇌를 보호하다’를 제시한다. 이렇게 머리가 보호하고 있는 두뇌를 통한 다양한 정신 활동을 또 다른 구성 요소로 삼아 ‘인간과 세상 사이의 관계’로 묶었다. 물론 머리의 주인인 ‘인간’도 입력 공간₂의 구성 요소로 제시된다. 이러한 입력 공간 구축을 아래 [그림 9]로 나타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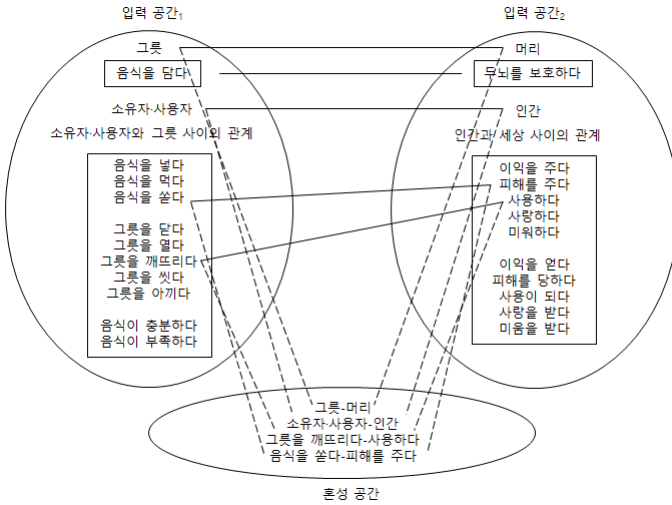
다음 단계로, 이렇게 구축된 두 개의 입력 공간 사이의 공간 횡단 사상에 대해 논의해 보자. 우선, 개념적 은유 {머리는 그릇이다}의 중심 개념인 ‘그릇’과 ‘머리’가 공간 횡단 사상을 이루며, 그릇과 머리의 주요 기능들 사이에도 공간 횡단 사상이 이루어진다. 또한, 그릇을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사람과 머리의 주인이 공간 횡단 사상을 이룬다. 한편, ‘소유자·사용자와 그릇 사이의 관계’와 ‘인간과 세상 사이의 관계’로 묶어 놓은 구성 요소들 사이의 공간 횡단 사상은 실제 언어 표현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릇을 깨뜨리다’는 ‘피해를 주다’와 사상을 이룰 수도 있고, ‘싫어하다’와 이룰 수도 있으며, ‘피해를 당하다’와도 이룰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이익을 얻다’는 실제 언어 표현에 따라 ‘음식을 넣다’, ‘음식을 먹다’, ‘그릇을 열다’ 등과 공간 횡단 사상을 구성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입력 공간 사이의 일반적 공간 횡단 사상을 나타내는 아래 그림에서는 ‘소유자·사용자와 그릇 사이의 관계’와 ‘인간과 세상 사이의 관계’만을 대표로 실선으로 연결하였다.



[그림 9] 개념적 은유 {머리는 그릇이다}의 입력 공간 구축과 공간 횡단 사상

지금부터는 위 예문의 *casser la tête*와 *se casser la tête*에 대하여 『관용 표현 해설』에서 기술한 각 표현의 의미가 형성되는 개념적 통합을 선택적 사상과 혼성 공간 구축을 통해 분석하겠다. 첫째, (1.a)에서 *casser*는 물건을 부수는 행위이므로 입력 공간₁의 ‘그릇을 깨뜨리다’가 선택되며, 그릇이 깨지면 음식을 쏟게 되므로 ‘음식을 쏟다’도 선택된다. ‘그릇을 깨뜨리다’는 인간이 세상의 물건을 사용하다가 생기는 행위이므로 입력 공간₂의 ‘사용하다’와 공간 횡단 사상이 이루어지며, 음식을 쏟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이므로 ‘음식을 쏟다’와 ‘피해를 주다’ 사이의 공간 횡단 사상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선택된 두 개의 구성 요소가 혼성 공간으로 사상된다. (1.a)의 *casser la tête à quelqu’un*은 너무 말을 많이 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짜증나게 하는 것이 마치 그릇을 깨뜨려 음식을 쏟음으로써 피해를 주는 것처럼 여겨져 그와 같은 은유적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 개념적 통합 연결망을 아래 그림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²¹⁾ 여기에서, ‘음식을 담다’와 ‘두뇌를 보호하다’는 혼성 공간으로 투사되지 않는다. 이 예문에서는 그릇과 머리의 그와 같은 대표적 기능은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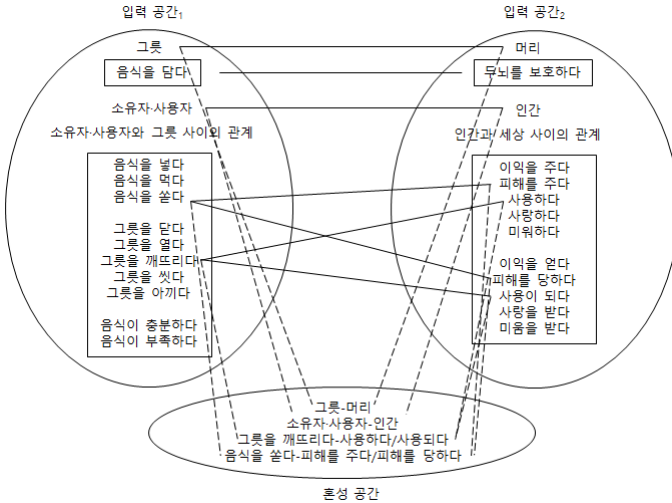
21) 이미 언급했듯이, 실제 언어 표현의 은유적 의미가 혼성 공간에서 구성되는 것을 보여 주는 개념적 통합 연결망에 대한 분석에 총칭 공간은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그림에서 총칭 공간은 나타내지 않는다.



[그림 10] casser la tête à quelqu'un의 개념적 통합 연결망

다음으로, (1.b)의 se casser la tête를 살펴보자. 이 표현에 대하여 입력 공간₁에서는 (1.a)의 분석과 마찬가지로 ‘그릇을 깨뜨리다’가 선택되지만, ‘그릇을 깨뜨리다’가 여기에서는 입력 공간₂의 ‘사용하다’와 동시에 ‘사용되다’에 대해서도 공간 횡단 사상을 이룬다. 대명동사는 기본적으로 스스로에게 행위를 가하는 동시에 행위를 당하는 개념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한편, 그릇이 깨지면 음식이 쏟아지므로 (1.a)의 의미 구성에서와 마찬가지로 입력 공간₁에서 ‘음식을 쏟다’가 선택된다. 그런데 (1.a)의 의미 구성과는 달리 ‘음식을 쏟다’가 ‘피해를 주다’뿐만 아니라 ‘피해를 당하다’와도 사상을 이룬다. 방금 대명동사의 개념에 따라 입력 공간₂의 ‘사용하다’와 동시에 ‘사용되다’가 사상의 대상이 된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1.b)의 se casser la tête의 의미로 앞에서 제시한 ‘스스로에게 많은 어려움을 부과하다’가 프랑스어로는 se donner beaucoup de mal이라고 대명동사로 기술되어 있다는 사실이 ‘피해를 주다’와 ‘피해를 당하다’가 동시에 사상을 이루는 이러한 분석을 뒷받침한다. 또한, (1.b)의 Le problème de mathématiques était très difficile이 그와 같은 어려움의 배경을 제공함으로써 많은 어려움을 부과한다는 은유적 의미가 정당성을 갖는다. (1.b)의 은유적 의미 구성을 다음과 같은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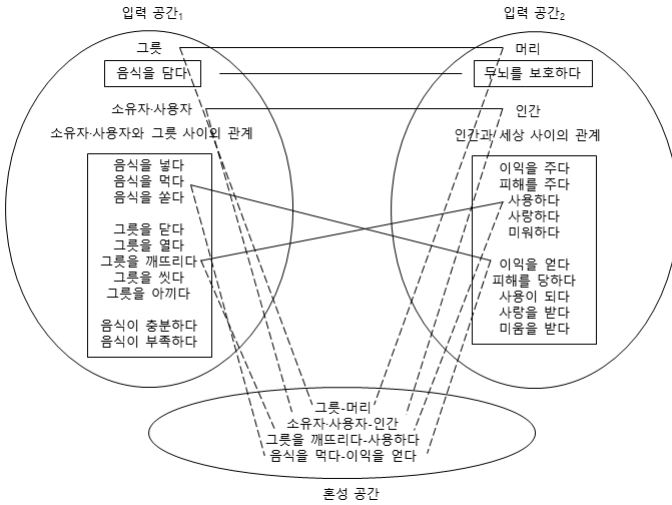
적 통합 연결망으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에서도 (1.a)에 대한 분석과 마찬가지로 ‘음식을 담다’와 ‘두뇌를 보호하다’는 혼성 공간으로 투사되지 않는다.



[그림 11] se casser la tête(se donner beaucoup de mal)의 개념적 통합 연결망

마지막으로, (1.c)에서 se casser la tête가 나타내는 의미가 (1.b)에서 보이는 의미와 다른 것도 선택적 투사와 혼성 공간 구축을 통하여 분석하겠다. 자신의 그릇을 스스로 깨뜨리는 이유가 무엇일까? 스스로 그릇을 깨뜨려서라도 무엇을 얻기 위한 것을 하나의 이유로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예문에서는 얻으려는 그 무엇이 Il s'est finalement souvenu du titre de ce film을 통해 나타난다. 그러므로 이 예문에서는 입력 공간₁의 ‘음식을 쏟다’가 아니라 ‘음식을 먹다’가 선택되어 ‘이해를 얻다’와 공간 횡단 사상을 이룬다. 한편, 영화 제목을 기억해 내고자 하는 행위자의 능동적 의도가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기 때문에 ‘깨뜨리다’에 대하여 수동적 의미의 ‘사용이 되다’는 대응되지 않고 능동적 의미의 ‘사용하다’만 대응되어 공간 횡단 사상을 이루게 되고, ‘깨뜨리다’와 ‘사용하다’가 혼성 공간으로 사상된다. 그릇에 담겨 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뚜껑을 열어야 하는데, 뚜껑이 열리지 않을 경우 음식을 반드시 먹어야 한다면 그릇을 깨는 방법이라도 사용하는 것이

다. 이와 같은 노력이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고민의 정도가 높다는 의미가 생겨나는 것이다. 대단히 고민하다는 의미를 보이는 (1.c)의 se casser la tête에 대한 개념적 통합 연결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여기에서도 (1.a)와 (1.b)에 대한 분석과 마찬가지로 ‘음식을 담다’와 ‘두뇌를 보호하다’는 혼성 공간으로 투사되지 않는다.



[그림 12] se casser la tête(réfléchir de manière intense)의 개념적 통합 연결망

5. 맺음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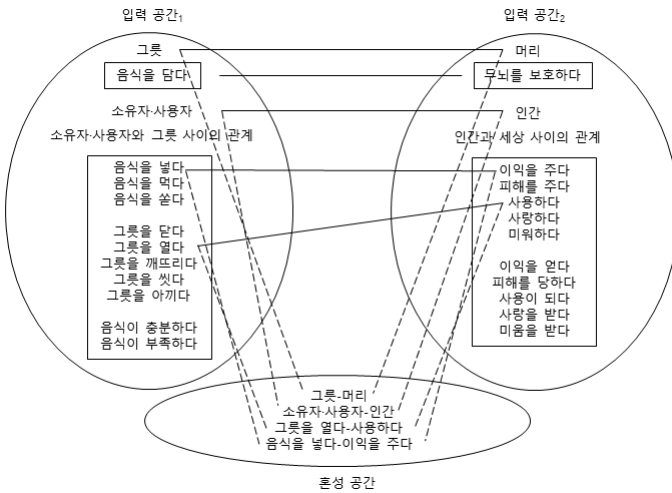
이 논문에서 우리는 tête가 비유적 의미를 보이는 표현들 가운데 casser la tête와 se casser la tête의 의미를 분석하였다. 개념적 은유 {머리는 그릇이다}가 예문 (1.a.b.c)에서 실제로 각각 서로 구별되는 은유적 의미를 드러내도록 하는 개념적 통합 연결망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깨뜨린다는 의미의 casser가 사용된 표현은 직관적으로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상정할 수 있다. (1.a)의 casser가 전형적으로 그러한 의미를 반영한다. 예문에서 바르바라는 자신의 연애 이야기를 자랑하는 대상으로 ‘나’를 삼는

데, 마치 그릇을 사용하다가 그 사용이 과도하여 그릇을 깨뜨리듯이 자량이 너무 심하여 결국 ‘나’를 짜증나게 하는 것이다. 한편, (1.b)에서는 *casser*가 대명동사 형태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깨뜨리는 행위를 하는 주체와 깨뜨림을 당하는 객체가 동일하다. 따라서 입력 공간₁의 ‘음식을 쏟다’가 (1.a)의 의미 구성과는 달리 입력 공간₂의 ‘피해를 주다’ 뿐만 아니라 ‘피해를 당하다’와도 공간 횡단 사상을 이루며, 마찬가지로 ‘그릇을 깨뜨리다’는 ‘사용하다’와 ‘사용이 되다’로 동시에 사상이 된다. 그리고 ‘피해를 주다/피해를 당하다’와 ‘사용하다/사용되다’가 모두 혼성 공간으로 투사된다. (1.c)에서는 *se casser la tête*라는 표현이 *Il s’est finalement souvenu du titre de ce film*과 함께 사용되어 능동적 의도가 명백히 드러나기 때문에 피해를 주거나 당한다는 부정적 의미가 퇴색된다. 그래서 입력 공간₁의 구성 요소 가운데 (1.a.b)와는 달리 ‘음식을 먹다’가 선택되고, 그것이 ‘이익을 얻다’와 공간 횡단 사상을 이룬다. 즉, (1.a.b)와는 다르게, ‘피해를 주다’나 ‘피해를 당하다’가 공간 횡단 사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웅거러·슈미트(2010[2006]: 360-361)는 개념적 은유 접근법이 장기 기억 속에 저장된 인지 모형으로 작용하는 반면에 혼성 접근법은 인지 모형에 기초를 둔 채 실시간으로 처리되면서 구성되는 정신 공간에서 작용한다고 설명한다. 또한, 정신 공간은 문맥 의존적이며 특정 상황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고 기술한다. 우리는 *casser la tête*와 *se casser la tête*에 대한 분석으로 이와 같은 개념적 혼성 이론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었다. {머리는 그릇이다}라는 장기 기억에 존재하는 개념적 은유가 실제로 예문 (1.a.b.c)에서 각각 서로 다른 문맥에 따라 실시간으로 구성된 개념적 통합 연결망에 의해 세 개의 서로 다른 은유적 의미로 발현되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1.a)에서는 *toute l’après-midi*와 *avec ses histoires de cœur*라는 배경에 의해 사람을 짜증나게 하는 구성 요소들로 개념적 통합 연결망이 구성되었다. (1.b)는 *Le problème de mathématiques était très difficile*이라는 문맥이 ‘어려움과 문제’라는 의미를 유도하였으며, (1.c)는 *Il s’est finalement souvenu du titre de ce film*이라는 문맥에 의해 *casser*의 부정적 의미가 실시간 의미 구성 과정에서 퇴색된 것이다.

향후 연구의 가능성을 간략히 제시해 보자. 개념적 은유 {머리는 그릇이다}가 (se) *casser la tête*에서만 보이는 것은 물론 아니다. 예를 들어, *Il a*

passé l'après-midi avec son fils à essayer de lui enfoncer les tables de multiplications dans la tête²²⁾에서 쓰인 관용 표현 enfoncer quelque chose dans la tête de quelqu'un이 ‘기억시키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도 개념적 은유 {머리는 그릇이다}로부터 다음과 같이 구성된 개념적 통합 연결망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13] enfoncer quelque chose dans la tête de quelqu'un의 개념적 통합 연결망

한편, tête가 사용된 비유적 표현들이 모두 {머리는 그릇이다}라는 개념적 은유를 보이는 것도 물론 아니다. 예를 들어, ‘바보같은 짓을 하다’는 의미의 être tombé sur la tête, ‘물에 뛰어들다’는 의미의 piquer une tête, ‘스스로에게 신경질을 내다’는 의미의 se taper la tête contre les murs에 대해서는 {머리는 물체이다}라는 개념적 은유를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tête가 보이는 여러 개념적 은유들을 이 논문의 분석을 기초로 삼아 일관성 있게 분석한다면, 또한 앞에서 언급한 tête의 개념적 환유들을 혼성 이론의 틀

22) Précis, Les expressions idiomatiques, 2008, p.132.

에서 분석한다면 tête의 비유적 의미에 대한 인지언어학의 혼성 방법론을 통한 종합적 고찰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강호균, 「프랑스어 신체어 ‘tête’(머리)의 은유와 환유 표현 연구」, 『공사 논문집』, 제61집, 제1권, 2010, 9-34쪽.
- 김동환, 『인지언어학과 개념적 혼성 이론』, 박이정, 2013.
- 『표준국어대사전』, 국립국어원, stdweb2.korean.go.kr.
- 옹거러(프리드리히)·슈미트(한스-요르그) (F. Ungerer & H-J. Schmid), 『인지언어학 개론: 개정판』(*An Introduction to Cognitive Linguistics, Second Edition*). 임지룡·김동환 옮김, 태학사, 2010[2006].
- 박정준, 「인지언어학을 통한 main의 은유적 의미 분석」, 『프랑스문화예술훈구』, 제58집, 2016, 477-510쪽.
- Aristotle, Edited by Jonathan Barnes, *The Complete Works of Aristotle*, The revised Oxford Translation, Volume Two,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1995.
- Fauconnier (Gilles) & Turner (Mark), *The Way We Think, Conceptual Blending and the Mind's Hidden Complexities*, Basic Books, New York, 2002.
- Lakoff (George) & Johnson (Mark), *Metaphor we live by*, with a new afterword,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and London, 2003[1980].
- Langacker (Ronald W.), *Foundations of Cognitive Grammar*, volume I, Stanford University Press, Stanford, 1987.
- Langacker (Ronald W.), *Grammar and Conceptualization*, Mouton de Gruyter, Berlin, 1999.
- Langacker (Ronald W.), *Cognitive Grammar, a basic introduction*,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2008.
- Langacker (Ronald W.), *Investigations in Cognitive Grammar*, Mouton de Gruyter, Berlin, 2009.
- Le Nouveau Petit Robert*, édition entièrement revue et amplifiée du *Petit Robert*, Dictionnaires Le Robert, Paris, 1993.
- Précis, Les expressions idiomatiques*, par Isabelle Chollet et Jean-Michel Robert, CLE international, Paris, 2008.

❖ ABSTRACT

Cognitive Analysis of the Meaning of *(se) casser la tête*

Park, Jungjoon

The fundamental issue is that the idea of the metaphor was not often considered to be a subject of linguistics, but Lakoff and Johnson considered metaphor as a subject of linguistic analysis through the theory of *conceptual metaphor*, arguing that metaphors are not only prevalent in our everyday language, but also in the world of thought. Generally speaking, cognitive linguistics also takes the view that an adequate conceptual framework for linguistic analysis should view figurative language not as a problem, but as part of the solution.

Conceptual blending is one of the methodologies of cognitive linguistics that deals with how the meaning is structured, and it is a rather complex cognitive process consisting of input spaces, cross-mapping and projection that are brought into the blend. The blend develops the emergent structure that serves as a clue to the composition of the meaning.

The conceptual metaphor theory focuses on the abstract conceptual metaphor itself, but the blending theory focuses on how the metaphorical meaning of an individual expression is constructed in those cases. The conceptual theory works as a cognitive model stored in an individual's long-term memory, but the blending theory works through the mental space that is constructed during real-time processing in the brain. We use this blending theory to analyze the metaphorical meaning of *(se) casser la tête* through the conceptual integration network model.

This analysis confirms that the conceptual metaphor {The head is a container} that presents in long-term memory is expressed in metaphorical meanings, which are at once considered to be distinct by the conceptual

integration network configured in real time, according to the different contexts provided in the sentences.

Key Words : metaphor, metonymy, *tête*, blending theory, cognitive linguistics

■ 논문접수일 : 2019. 02. 10

■ 심사완료일 : 2019. 03. 01

■ 게재확정일 : 2019. 03. 11